영유아의 기관 이용 보편화 시대,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생각한다

우남희 소장

지난 2012년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과 만5세 누리과정 이용에 대한 지원이 전소득계층 대상으로 도입된데 이어, 2013년에는 만3~4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지원이 실시되면서 이른바 ‘무상보육·교육’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의 확대’는 자녀의 기관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기관 이용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신체적 양육 부담 경감,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줄여 궁극적으로 출산률을 제고하려는 목적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2012년~2013년을 전후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인구는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그간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던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산출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0세아 중 16.1%, 1세아 중 70.1%, 2세아 중 86.3%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아무상보육 시행 전인 2011년 말 0세의 15.9%, 1세의 56.1%, 2세의 73.5%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아기부터의 기관 이용 확대로 대표되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보편화’ 속에서 영유아의 기관 이용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2014년에 이루어진 육아정책연구소의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취업 등 대리양육자의 필요 여부와는 관련 없이 영유아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히 ‘무상보육·교육 확대’라는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영유아의 기관 이용이 증가한 가운데, 영유아의 기관 이용을 자연스럽게,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책적 지원에 의한 기관 이용의 보편화가 혹시 부모 역할과 책임성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는 국가의 약속과 ‘비용 지원’이 부모의 선택권을 넓혔을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궁극적 책임도

부모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는 않았는지 이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맞벌이 부모처럼 불가피하게 장시간의 기관 보육·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핵가족화와 소자녀화로 가구원 수도 20~3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현실을 생각할 때 영유아가 가정에서 부모 혹은 대리양육자 1명과 지내는 것보다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질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부모들이 기관에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현상에 대해 즉, 부모의 기관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영유아가 더 이른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게 되는 ‘보편화’를 사회 환경과 정책 지원에 의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고 조화와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모니터링단’, ‘열린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통로를 통해 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형태에의 참여는 어렵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알림장, 가정통신문을 챙기고 자녀를 맡겨 둔 기관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부모는 기관과의 소통과 기관보육·교육에 대한 관심에 우선하여 가정에서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공유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책임성을 다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기관과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뿐 아니라 ‘네 아이, 내 아이 아닌 소중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옛 시절 대가족 사회에서 윗 세대에서 아랫 세대로 전해지던 육아의 지혜와 정보, 가족간의 돌봄과 같은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소자녀 시대에 누구에게나 새로울 수 있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와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화된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공식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감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된 시대이지만 여전히 부모가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이며, 부모를 중심으로 기관과 지역사회 또한 ‘우리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주체로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관과 부모간의 불신, 지역사회의 무관심이 현실이지만,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부모-기관-지역사회가 상호 보완과 협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